

# 韓美 금리 역전 눈앞...한국경제 발목 잡나

### 美 0.25%P 인상해 年 1.25%...올 1차례 추가 인상 가능성 가계부채·수출악영향 우려...“예정된 수순...영향 미미” 분석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5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한국 경제에 어떠한 영향이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미약하게 살아나는 국내 소비심리가 다시 움츠러들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신용국 경기 위축으로 회복세인 한국 수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이번 금리 인상이 이미 몇 개월 전부터 예측됐던 터라 별다른 충격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소비 회복 지연되고 수출에도 부정적 영향 미칠까 우려=같은 점체의 눈에 빠졌던 한국 경제는 최근 1분기 1%대 성장률로 기저가 켜는 등 점차 활력을 되찾아가는 과정이라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은 이런 기대감에 반하는 소식이다.

연준은 올해 3월 한 차례 기준금리를 올린 데 이어 3개월 만에 또다시 0.25%포인트 인상하면서 연 1.0~1.25%가 됐다. 한국은행이 1년째 유지하고 있는 연 1.25%와 같은 수준이었다.

금리 인상은 한국 경제의 시한폭탄으로 지목되는 가계부채에 불을 당길 우려가 있다.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한국 가계신용 잔액은 1359조7천억원으로 집계를 시작한

이후 사상 최대다.

GDP 대비 비율도 높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한국의 작년 말 기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2.8%로 1년 전보다 4.7%포인트 상승했다. BIS가 자료를 집계하는 세계 43개국 중 3위다.

빛은 빠르게 늘고 있는데 금리까지 오르면 이자 부담이 커져 가계는 지갑을 닫을 수밖에 없다. 한계기업과 한계기업이 무너질 우려도 커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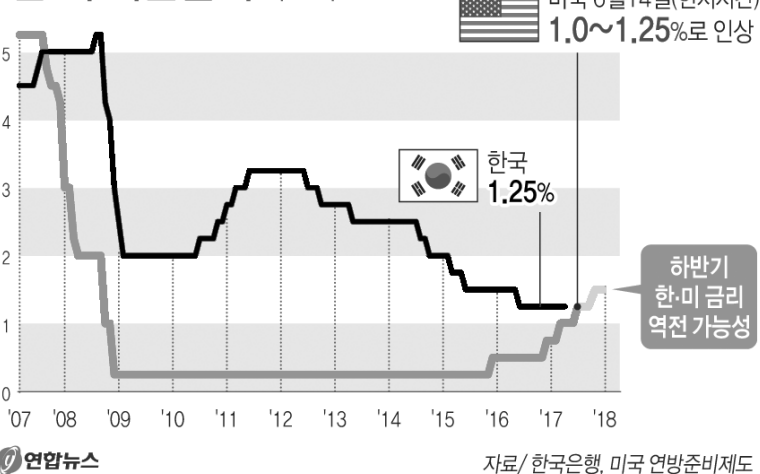
수출에도 악영향이 있을 수 있다. 금리 인상은 달러화 강세를 불러 원·달러 환율이 오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한국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는 부분은 수출에 긍정적이다.

그러나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진다면 자금 유출이 가속하면서 한국을 포함한 신흥국 경기 위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미 예정된 수순 별다른 충격 없을 수도=정부 대응 주목=미국 금리 인상으로 한미간 정책금리가 같은 수준으로 맞춰졌고, 하반기에는 역전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제 한국은행으로 시장 눈길이 쏠린다.

시장에서는 국내 경기가 예상의 호조를 이어간다면 연말께 한은이 행동에 나설 것이라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재닛 옐런

## 한·미 기준금리 추이



미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의 보유자산 축소 관련 발언으로 한은에 압박이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옐런 의장이 올해 한 차례 추가 금리 인상을 예고해서 9월 혹은 12월이면 한미 정책금리가 역전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2007년 8월 이래 10년 만이다.

하지만 이번 금리 인상은 예정된 수순인 만큼, 별다른 충격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김형주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연준 금리 인상은 이미 몇 달 전부터 예상됐던 사안이라 원·달러 환율이나 한국 시장 금리 등 시장에 반영돼 있다”며 “신용 시장 자금 유출 등의 위기를 조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도 “미국 금리 인상은 시장에서 예측하는 상황이라고 자체가 주는 영향은 적다고 본다”며 “앞으로도 급격히 금리를 인상할 우려도 조금 덜어진 상황이라 큰 충격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는 일단 이날 52차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어 미국 금리 인상의 영향을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서울 서초동 정보기술(IT) 업체인 아이티센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 금리 인상은 정책당국과 시장이 이미 예상했던 것”이라며 “가계부채 등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연남뉴스

## “금호타이어 부실매각 막아달라”

### 노동자회 청와대 앞 무기한 1인 시위

금호타이어 노동자들이 “금호타이어의 부실매각을 막아달라”며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에 들어갔다.

금호타이어 민주노동자회는 15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금호타이어 부실 해외매각을 막아달라며 전날부터 청와대 앞에서 ‘무기한 1인 시위’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노동자들은 “경영진과 채권단의 갈등으로 금호타이어 졸속 매각이 추진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권을 발동해 사태를 바로 잡아 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2010년 금호타이어가 워크아웃에 돌입했지만 임금삭감 등 자구책 마련을 통해 3000억원 이상의 흑자를 달성해 정상화로 돌아설 것으로 기대감이 컸었다”면서 “하지만 경영진의 해외 부실투자 영업환경 악화도 다시 적자로 전환됐다”고 밝혔다.

노동자들은 “채권을 인수한 중국 자본 더블스타는 경영능력이 확인되지 않았고 자본구조가 취약해 ‘떡튀’ 논란이 일고 있으며 이로 인해 노동자들은 고용불안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고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보훈의 달 쌀 기부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감사의 마음과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15일 광주지방법원에 ‘사랑의 쌀’ 1000kg을 기부하는 행사를 가졌다. <롯데백화점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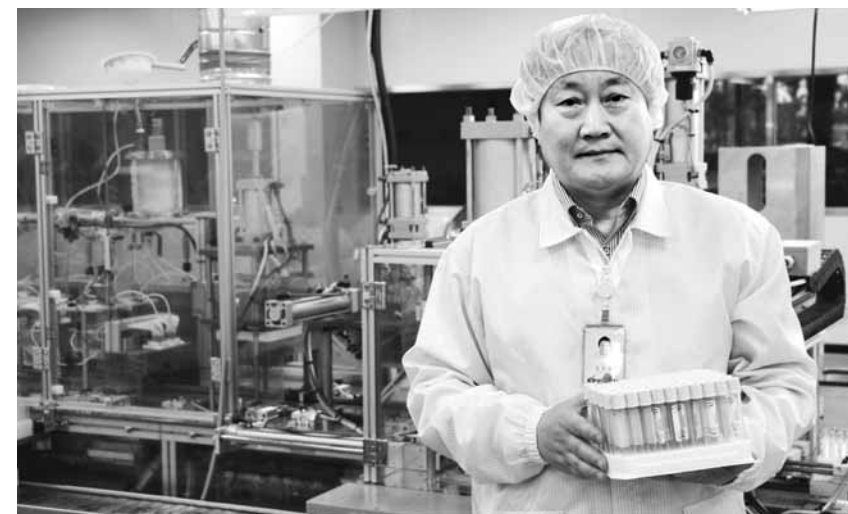
또 문 대통령에 대해서는 “후보자 시절 금호타이어 매각과 관련해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보장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해서 추진할 것을 언급한 만큼 이에 따른 후속 조치를 마련해 나설 것”을 요청했다.

이들은 “지난 워크아웃 기간 동안 임금

삭감과 구조조정의 고통을 감내하면서 삶의 전부인 금호타이어를 지켜왔지만, 현재 노동자들은 부실 매각 추진으로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며 “졸속 매각 중단과 공정위 조사가 이뤄지는 날까지 청와대 앞 1인 시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2361.65 (-10.99)      금리 (국고채 3년) 1.68% (0.00)
- ↓ 코스닥 669.82 (-1.77)      ↑ 환율 (USD) 1124.10원 (+0.20)



지난 13일 김영균 대표가 장성 나노산업단지 공장에서 진공채혈관 제조공정을 설명하고 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 제공>

## 外産 90%...‘일회용 채혈기’ 국산화 선도

### 2019년까지 월 2500만개 생산...‘우수조달품’ 선정

### 산단공 기업탐방-에이비메디컬

“진공채혈관(V-TUBE) 생산 규모를 월 800만개에서 오는 2019년까지 월 2500만개 수준으로 대폭 확대, 국내 1위 기업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진공채혈관 전문업체인 에이비메디컬(대표 김영균)은 지난 13일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에서 주최한 ‘산업단지 우수기업 투어’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내 진공채혈관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 지난 3월 공장을 장성 나노산업단지로 이전해 생산시설 증축 작업 중이라고 밝혔다.

에이비메디컬은 전남대학교 BIT융합기술기반구축사업단이 개발한 ‘채혈관 제조 자동공정 기술’을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이전받아 고품질의 제품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구축하고 양산화에 성공했다.

진공채혈관은 채혈을 용이하고 위생적으로 하기 위한 유리나 플라스틱 재질의 투명한 튜브다. 각종 시약과 젤 등을

미리 충전하고 채혈량에 따라 진공을 설정해 밀봉한 일회용 채혈기다. 현재 국내 진공채혈관 시장은 미국·독일·오스트리아·중국 등 외산제품이 90% 가까이 점유하고 있어 국산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에이비메디컬은 임상 인증시약 제조 기술과 특허 기술로 설계한 자동화 설비를 갖췄다. 또 세계에서 인정받은 일본 세키스이 젤을 사용해 국내 기업 가운데는 처음으로 중기형 성능인증(EPC)을 받은데 이어 조달청 우수조달제품으로 등록했다.

에이비메디컬의 진공채혈관은 채혈 목적에 따라 32종을 생산한다. 면역력 검사 등 특수 목적에 맞는 주문형 제품도 생산한다. 외산제품과 비교해 성능은 동일하면서도 가격은 30% 정도 저렴하다.


올해는 공공기관 납품과 조달에 참여해 안정된 매출 기반을 마련하고, 수출 물량도 확대해 지난해보다 2배 늘어난 70억원의 매출을 계획하고 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진에어 광주~제주 항공편 7월까지 특가 판매

진에어가 오는 30일 신규 취항하는 광주~제주 노선의 특가 프로모션을 7월 20일까지 진행한다.

특가 항공편은 6월 30일부터 7월 20일 사이에 운항하는 항공편 대상으로 편도 총액 운임 1만6200원부터 판매된다. 진에어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예약 가능하다. 위탁 수하물은 일반 항공편과 동일하게 무료로 제공된다.

진에어는 오는 30일부터 총 189석 규모의 B737-800 항공기를 투입해 일 2회 왕복 스케줄로 광주~제주 노선을 운항한다. 오전 첫 편인 LJ593편은 광주에서 오전 8시45분께 출발해 제주에 오전 9시 35분께 도착하고, 저녁 출발편인 LJ595편은 광주에서 오후 8시20분 출발해 제주에 오후 9시10분께 도착하는 스케줄이다. /김대성기자bigkim@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20년경력 조여사 010-6211-4585

경, 공매 컨설팅

#### 수익형 추천

- ★ [건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중심상권 일반상업지역 위치좋은 상무대로변 지상층건물 대지 1342㎡ 건물 413.49㎡ 매매 49억
- ★ [건물] 광주 서구 동천동 동림2지구내 중심상권 아파트 상가 밀집지역 하남대로변 위치좋은 지하층~지상7층 대지 867.90㎡ 건물 4124.36㎡ 매매 65억 (보5억 월수익 3천9백)
- ★ [건물] 광주 동구 지산동 법원 정문앞 위치좋은 지하층~지상5층 대지 198㎡ 건물 729㎡ 매매 25억 (보5억6천500만)
- ★ [건물] 북구 신용동 첨단2지구 아파트밀집지역 메인상권 4층건물 대지 780㎡ 건물 1,830㎡ 매매 48억 (보5억3천 월2천2백 포함)
- ★ [고시원] 광주 동구 서석동 룸 36개 5층건물 1층 커피전문점 토지 423㎡ 건물 845.23㎡ 매매 18억 (대출7억 월수익 1천3백)
- ★ [토지] 전남 창평면 삼천리 계획관리구역 1중주거지역 슬로우 시티 옆 대지 3,041㎡ 전원주택 (단지조성가능) 적합
- ★ [토지] 광주 북구 삼각동 도시지역 1종일반주거지역 도로점 대지 1326㎡ 상가건물, 창고 적합

#### 사우나

- ★ [건물] 광주 광산구 월곡동 스포츠타운 사우나 위치좋은 건물 5,349.88㎡ 매매 85억 (상당후결정)
- ★ [건물] 북구 두암동 6층 지1~상5층 건물 위치최상 병원가능 대지 334.40㎡ 건물 990.88㎡ 매매 10억 (보1억 6백 월4백3십만포함)
- ★ [건물] 광주 동구 게임동 사우나 위치좋은 지1~4층 대지 364.22㎡ 건물 827.74㎡ 매매 85억 (상당후결정)
- ★ [건물] 북구 두암동 지1~상6층 건물 대지 496.20㎡ 건물 2360.35㎡ 매매 35억 (보3억5천 월2천포함)
- ★ [건물] 북구 두암동 지1~상4층 건물 대지 442.90㎡ 건물 1237.44㎡ 매매 11억 5천 (보1천5백 월1백2십만포함)
- ★ [건물] 동구 동명동 사우나상가5층건물 위치좋은 대로변점 현성업종 대지 452㎡ 1,464㎡ 매매 17억 (용5억포함)

#### 경매 추천 물건

- ★ [다가구] 광주 동구 산수동 3층건물 토지 275.1㎡ 건물 480.58㎡ 감정가 4억4천7백
- ★ [오피스텔] 광주 동구 동명동 대지 11.26㎡ 건물 23.68㎡ 감정가 2천8백3십만 ▶ 최저가 2천
- ★ [공장] 광주 북구 양산동 식품공장, 창고용도 대지 3653㎡ 건물 3971.63㎡ 감정가 39억2천2백만 ▶ 최저가 27억4천5백
- ★ [농가시설] 나주시 문평면 옥당리 (문평산단인근) 대지 4683㎡ 건물 1599.8㎡ 감정가 3억2천1백만 ▶ 최저가 2억2천5백
- ★ [장례관련시설] 장성군 삼서면 대곡리 대지 11546㎡ 건물 5733.24㎡ 감정가 48억8천6백만 ▶ 최저가 17억 5백

**공인중개사 김은희 062-714-2254**